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and
Reactiv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in Elementary School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강 건 택

2008년 2월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and
Reactiv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in Elementary School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강 건 택

2008년 1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and
Reactiv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in Elementary School

지도교수 오 재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강 건 택

2008 년 1월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의 시대는 무수한 정보를 누가 빨리 접촉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정보를 모두 선택할 수도 없으며 모든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관심, 흥미, 적성, 성격 등의 개인 내적인 정보를 분명히 알아야 가능하다.

개인에게 있어 초등학교 시절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며 학교교육은 개인이 성장, 발달해 나감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안내와 지도는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 학생들의 학습 성격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성격은 아동의 학교생활 및 학습에 대한 반응 양식으로 이에 대한 이해는 생활지도 및 개별화된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성격검사를 위한 다양하고 간편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그림(KSD : Kinetic School Drawing)

에 나타난 반응 특성이 학습성격 유형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교생활그림(KSD)이 학습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아동들과의 상담 및 진로지도, 개별화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효과적인 정보가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학습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KSD)의 반응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

- 1) 학습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과 관계가 있는가?
- 2) 학습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과 관계가 있는가?
- 3) 학습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과 관계가 있는가?
- 4) 학습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과 관계가 있는가?

나. 학습성격을 예측하는 도구로서 학교생활화는 유용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동화의 심리적 측면

미술교육이 학문의 한 분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심리학, 교육학과 사회학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동화의 연구는 이런 관련학문을 연구해

오면서 점차로 발전되어 왔다(김정희, 1993).

미술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를 구체화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 기분, 내적 욕구를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무의식적인 갈등, 정신역동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미술은 아동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최외선, 1998)

미술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아동화 분석을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의 분석, 인지 발달의 연구 또는 환경과 아동화의 관계 등의 연구가 많이 되어 왔다.

아동화의 심리학적 연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후 버어트(Burt, 1921), 로웬펠드(Lowenfeld, 1964) 등에 의해서 아동의 그림을 발달적 차원에서 연구하였으며, 구디나프(Goodenough, 1926)는 「그림에 의한 지능 측정 - Measurement of Intelligence by Drawing」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인물화 검사(Draw-a-Man test)를 소개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동화를 통해 지능을 측정하는 연구와 분석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본격화 되었다.

아울러 1940년을 전후해서 아동화는 지능성숙도의 측정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임상가들에 의해서 성격진단의 도구로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데스퍼트(Despert, 1940)는 아동의 여러 가지 놀이 과정과 마찬가지로 아동화도 어린이의 성격진단에 유용하다고 강조하였다(김재은, 2002, p.25).

클라게스(Klages)의 이론에 의하면 성격이란 것은 소재, 구조, 질의 세 가지 특성 군으로 나누어진다. 성격의 소재란 사물을 기억하고 파악하는 심리특성을 말하고, 성격의 구조란 감동성·의지·개인적 표현력 등의 특성으로 나누어지며, 이 세 가지 특성 간에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성격의 질은 인간의 관심 또는 충동탄력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 충동탄력이란 의욕의 방향을 지시하는 특성 군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세 가지 차원은 표현운동, 충동운동, 의지운동으로 나타남으로, 이 운동들을 묘화 속에서 탐지해 낼 수가 있다. 클라게스는 이들 세 가지 특성 군이 상호 관련 속에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가정에서도 그림의 성격진단의 이론적 기초를 시사 받을 수 있다(김재은, 1988, p.33).

성격의 측정, 진단은 심리학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검증과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의료 및 복지 분야의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김정

택, 2003)

개인의 성격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투사 기법을 들 수 있다. 투사 기법이란 개인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반응들을 통해 그의 성격을 고찰하려는 것으로서 비구성적인 자극, 즉 무의미한 도형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막연한 자극을 제시하면 그 자극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기술하는 독특한 반응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 아래 실시된다(이상로, 1986).

투사 기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기법이다. 그림에 의한 방법은 연령, 기능, 미술적 소질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아동에게 큰 관심과 흥미를 끈다는 장점 때문에 아동에게 적합한 검사 도구로써 활용되어지고 있다. 또 Bellack와 Symonds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기법이 Rorschach나 TAT같은 언어로 표현하는 투사 기법보다 성격의 더 깊은 층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숙희, 1985)

그림에 의한 방법 중의 하나인 학교생활 그림(Kinetic School Drawing ; KSD)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인물을 그림에 나타냄으로써 심리학적 문제들과 관련된 행동, 역동성이나 상호관계를 알아내는 임상적, 진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과 태도들에 대한 양상을 조사하는 기법이다.

교사나 부모는 학습자의 여러 능력 측면과 함께 흥미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 어떤 학습자는 독서를 거쳐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또 다른 학습자는 물리적 조작을 거쳐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이종금, 2000) 이는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 학습의 과정과 학습유형이 다름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하거나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고려하는 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학습자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 성격 유형을 구별해 내고 진단하는 도구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습에 대한 성격유형을 진단하는 도구들은 검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대부분이 질문법으로 되어 있어 어휘력이 낮고 문장 이해력이 덜 발달한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힘들며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부담감과 지루함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얻어 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습 성격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반응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교생활그림이 학습 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학생들과의 상담과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의사실기의 미술 표현 특징

아동의 미술표현은 평면표현과 입체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도구로 사용한 학교생활그림(KSD : Kienetic School Drawing)은 아동화의 평면표현에 해당하고 연구 대상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이므로 이 단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미술표현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미술교육자나 심리학자들이 아동화 미술 발달을 연구하여 단계화하고 있으며, 로웬펠드, 시릴 버트, 밀라드(Millard)와 디 프란시스코(de Francesco), 린스트럼, 켈로그(R. Kellog), 헬가 엠(H. Eng) 등이 대표적이다.

미술표현에서 발달단계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로웬펠드의 견해와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게이츠 켈과 허위츠, 데이의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단계를 연구한 김정의 견해를 종합하여 비교해 보겠다. 아울러 시릴 버트와 린스트럼의 견해도 살펴보고자 한다.

로웬펠드의 발달단계는 나이에 따라 2세 - 3세는 난화기, 4세 - 7세는 전도식기, 7세 - 9세는 도식기, 9세 - 11세는 또래 집단기, 11세 - 13세는 의사실기, 13 - 17세는 결정기로 나눈다.

발달단계에 있어 의사실기는 가장 흥미로운 시기지만 미술교육에서는 가장 노력을 요하는 시기이다.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발달단계를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초등학교 4, 5, 6학년의 표현은 의사실기의 특징을 많이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의사실기의 주요 특징은 첫째, 인물 표현에 있어 부분적인 이미지들을 결합하고 신체 활동에 대한 시각적 관찰을 하며 인물의 비례를 알고자 하고 비시각형은 표현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며 다양한 빛과 공간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의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둘째, 공간 표현에 있어 입체 표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며 원근법을 알며 시각형은 지평선을 표현하고 비시각형은 배경을 중요할 때만 표현한다. 셋째, 색채 표현에 있어 비시각형인 경우 원근과 기분에 따라 자연의 색채를 변화시키며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사용한다.

아동들은 자기가 본 것을 주로 표현하려는 시각형(visual type) 아동과 느끼는 내용을 주로 표현하려는 비시각형(non-visual type) 아동으로 나누어진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아동은 전체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반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미숙한 아동은 흥미 있는 부분만 자세히 관찰하고 과장되게 그린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그림에 대한 애착을 갖고, 표현력을 키워가는 아동들보다 그림을 포기하는 아동이 점점 많아지기도 한다. 이 시기는 관찰력이 증대되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크고 작음, 명암, 음영, 정밀 묘사를 분석하여 그리는 등 지적 판단이나 인과 관계의 줄거리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전체에서 부분의 관찰도 할 수 있게 되나 반면 소박성이나 순진성을 잃게 된다. 또한 성별에 따라 기호나 표현 형식, 용구 기법이 점차 달라지는가 하면 발상에 대하여 상상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며 비판력이 증대되고 감상이나 평가도 할 수 있게 된다.

케이츠클, 허위츠, 데이는 10-13세 까지를 '사춘기 이전단계'라 하였으며 이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 표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 둘째, 지각능력과 인식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며 자신감이 줄어든다. 셋째, 자신의 작품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넷째, 여자와 남자 사이에 많은 성적 차이가 있는 표현을 한다. 다섯째, 이 시기에 미술에 대해 잘 지도를 받지 못하면 미술적 능력이 정체된다.(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1995)

김정은 이 시기의 아동은 여명기로서 첫째, 도식화 되었던 기하학적 선묘법으로부터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묘화로 접어든다. 둘째, 거의 객관적인 상태에서 대상을 관찰한다. 셋째, 사회적인 독립성을 발견하는 시기로서 공동작업에 참가하길 즐긴다고 하였다.

시릴 버트에 의하면 11세 - 14세까지는 '억제의 시기'라 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시기로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의 표현이 미숙할 때이며 실망하여 그림에 흥미를 잃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신체나 언어 발달이 왕성한 때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려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운동이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한다. 그림에 있어서는 자기 발명적인 디자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인물 표현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 자연 풍경이나 과학 기구, 기물 등의 표현으로 소재가 전환된다고 하였다.

린스트립은 9세 - 11세를 '미적 관심의 쇠퇴기'라 하였으며 이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차가 많다. 둘째, 미적인 관심이 쇠퇴한다. 셋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단순화 시킨다. 넷째, 경험이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감상력이 자라고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해 진다. 다섯째, 성인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는 확실성을 간접적으로 찾고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지식, 신념, 의견들의 정확성을 보증 받고자 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남을 의식하며 형태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기저선이나 주관적인 공간 표현에서 벗어나 중첩과 원근을 의식한 표현을 하며 사실적인 표현과 개념적 표현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몇 가지 점에서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도 의식하게 되고 주관적 표현을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크게 발달하여 자신의 표현과 표현 대상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 상징적, 도식적, 주관적 표현에서 급속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시기이다. 인물을 그릴 때도 더 이상 도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물의 도식적 표현 즉 남자는 바지로, 여자는 치마와 긴 머리카락으로 표현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쓴다. 이 시기의 인물 표현에서 팔과 다리를 분리하여 놓아도 그것을 팔과 다리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잡하게나마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무척 노력하며 세부 묘사도 서로가 분리된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런 사실 표현은 사진을 그대로 베끼듯이 그리는 묘사가 아니라 대상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다. 결국 상징적 표현이 사실적인 표현이 되고 도식적 표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는 시기이다.(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이상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발달 단계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연령대를 포함한 단계별 표현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공통되는 일반적인 단계와 심리적, 표현상 특징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 등의 개별적 요인에 의한 표현 특징을 설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아동들이 속한 발달 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보편적인 표현 특징을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적 정보로서 학습성격 유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표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3. 학교생활그림(Kinetic School Drawing : KSD)

학교생활그림은 Knoff와 Prout(1988)가 개발한 그림검사로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그들과 관련성이 있는 학교인물, 즉 자신, 친구들, 교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학교 환경 내에서의 상호관계 및 학업 성취를 알아보는 투사기법으로써의 진단적인 측면이 있다.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KFD)와 학교생활 그림(Kinetic School Drawing : KSD) 등의 동적 그림체계에서 사용되는 그림은 그림 내에서 심리학적 문제들과 관련된 행동과 역동성을 일으키는 임상적, 진단적 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과 태도들에 대한 양상을 조사하는 기법으로써의 역할을 한다(이숙정, 1996)

또한 KSD는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것이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고립장면과 특별한 관계, 또는 청소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호작용을 인지하게 하여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김양숙, 2005).

KSD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각의 선택성(Selectivity of perception)을 들 수 있다. 선택적 지각이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구성원, 장소, 활동 내용, 주변 사물 등을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여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의 선택과정에서 개인의 성격적 측면의 욕구가 반영되어 그림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동적그림체계(Kinetic Drawing System)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Burns & Kaufman(1970, 1972)은 기술된 누적 자료를 사용하여 임상 장면에서

행위, 양식, 상징, 해석적 지침을 사용하였고, Mayer(1978)는 팔의 빼침, 음영, 힘의 장이 연령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Sobel(1976)은 남자 청소년 비행아와 정상아의 변별 연구에서 신체부위의 생략, 가족의 생략, 비활동성의 세 가지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신체 부위의 생략과 비활동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충동성을 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나 검사자에 대한 반감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日北(197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군의 남자는 자기상을 용지의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많이 그리는 반면 임상군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김양숙, 2005, p. 165에서 재인용).

김애랑(199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와의 친밀감이 높은 청소년은 인물상의 표정이 밝고 우호적인 반면 낮은 청소년은 표정이 어둡고 비우호적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감이 높을수록 긴장을 나타내고 불안감이 낮은 경우 양가감정, 신체에 대한 집착과 관심, 감정의 비개방성을 더 많이 나타내었고 자아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외선·이숙정(199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자기상과 교우상을 정면으로 그려져 있을 경우 사회적 자신감이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교우상이 정면상일수록 학습적 자아감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KSD 반응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최외선·곽형식·백양희(1998)는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많이 듣는 집단이 적게 듣는 집단보다 완전한 신체형태의 교사상을 더 많이 나타냈다고 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에서 만족집단이 즐거운 표정의 자기상, 교사상을 그렸고, 불만족 집단은 기분 나쁜 표정의 교우상을 그렸다고 했다. 또한 부(父)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상과 교우상에서 발의 생략이 적었고 부(父)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교사상을 많이 생략했다고 했다.

조미경(2004)이 연구한 자기, 교사, 교우 지각과 학교생활화 반응특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지각이 높을수록 교사와 협동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 자기와 교사가 우호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기지각이 부정적인 집단에서는 가학성이 있는 교사를 그리고 경직된 자세의 교우를 그리

는 경향이 높았다고 했다. 교사 지각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아동에 비해 협동하는 자기, 교사, 교우의 모습을 많이 그렸으며 교사의 이목구비를 다 그리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의 얼굴 표정 또한 우호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고 했다. 교사 지각이 부정적인 집단이 교우의 자세를 경직되게 그리는 경향이 많았고 피학성과 가학성이 있는 그림이 많았다고 했다. 또한 교우 지각에 따른 학교생활화 그림에서는 부정적인 집단이 자기피학성이 나타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눈을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고 했다.

김양숙·김갑숙(2005)은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그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보다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피학성과 가학성이 있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자기상의 얼굴표정을 비우호적으로 표현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지우기에서는 지우기를 하지 않은 집단이 스트레스가 높았다. 온화하고 우호적인 표현보다 전체적으로 비우호적이고 분리감을 나타내거나 부분적으로 분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그림은 학교, 의미 있는 타인, 즉 친구와 교사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는 투사기법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동 상담 및 심리치료에 유용한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그림은 아직 초보적인 연구 단계에 있으며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에 의한 측정오차가 연구되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해석의 주관성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자의 일관성 있는 태도 유지와 해석 시 부분적인 특징이나 형식보다 내용이나 전체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학교생활그림을 통해 현재의 심리상태 파악에 중점을 둔 연구인데 반해 본 연구는 평생에 걸쳐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지니는 성격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학습성격유형

학습성격유형이란 학습에 개입되는 성격적 변인을 말하며, 김만권과 한종철(2001)은 학생들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학습성격 유형을 고려한 학습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Keirse y & Bates(1978)은 성격유형을 디오니소스형 기질, 에피메테우스형 기질, 프로메테우스형 기질, 아폴로형 기질로 분류했다. 이러한 4가지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학습에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하여 Golay(1982)는 학습성격유형을 Actual-Spontaneous Learner, Actual-Routine Learner, Conceptual-Specific Learner, Conceptual-Global Learner로 분류하였으며 국내의 연구에서 김만철과 한종철은(2001) 위의 Golay의 4가지 학습 성격 유형을 각각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4가지 기본 성격유형과 행동-규범형, 행동-탐구형, 행동-이상형, 규범-탐구형, 규범-이상형, 탐구-이상형, 행동-규범-탐구형, 행동-규범-이상형, 행동-탐구-이상형, 규범-탐구-이상형의 10가지 성격유형으로 조합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격유형으로서 기본유형만 고려하였으므로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행동특성 및 선호하는 수업방식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동형

행동형 학생은 활동하기를 좋아하며, 직접 체험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경쟁적이고 모험적인 시도를 통해 성장한다. 규칙에 얽매이기를 매우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지시나 통제를 받으면 반발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 이들은 미래를 위해 '대비' 혹은 '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스타일이고, 매일 매일 판에 박은 듯한 일과에 쉽게 실증을 느끼며, 변화와 자극적인 것을 선호한다. 남을 웃기거나 즐겁게 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수업시간에 장난을 많이 치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는 경향이 있다.

행동형 학생들은 종이와 연필을 갖고 하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방식을 매우 지루해 한다. 이들은 순간의 충동을 자유롭게 배출해 낼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소리와 색깔과 움직임이 풍부한 자극적인 분위기에서 학습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대개 강의나 소크라테스 문답식 수업을 싫어하며 문제집이나 각 장의 끝에 있는 정리문제를 풀기 싫어한다. 이들에게 속

제란 부모-학생, 교사-학생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행동형 학생들은 음악, 연극, 미술, 공예, 기계학, 건축 등이나 그 밖의 활동적인 과목들을 선호한다.(강경미, 2003)

즉 행동형 학생은 강의식 학습보다 자기 손으로 만들거나 조작하는 것을 비롯한 체험 학습을 선호한다. 활동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며 모험하기를 좋아하고 반복되는 학습보다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함과 흥미를 갖춘 발표(presentation)식 수업을 좋아한다.(이경아 외, 2004)

2) 규범형

규범형 학생들은 규칙이나 모범적인 행동으로 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들은 공부에 대한 진정한 가치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공부하라는 지시가 공부를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규범형 학생들은 대개 좋은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학습하기를 선호하고 과제는 항상 제때 내는 편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은 지시를 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좌석이 잘 정렬되어 있고, 교사와 학생이라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학급 분위기를 선호하며, 교사의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이 무엇을 배울 때는 그 새로운 기술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여주고,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도록 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계산, 낭독, 철자법 등과 같은 기계적인 기술을 연습하는 것을 즐기며, 과학의 사실적 측면, 지리, 역사, 경영학이나 회계학, 교직 등의 업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강경미, 2003)

즉 규범형은 윗사람(부모, 교사 등)의 지시에 매우 순응적이며, 그들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 또한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며 관습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규범형은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질책이나 비난도 잘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반복, 훈련, 그리고 자료에 대한 단계적 제시를 통해서 사실과 절차들을 기억하고 구분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한다.(이경아 외, 2004)

3) 탐구형

탐구형 학생들은 지식의 습득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개 학교 성적이 우수한데, 기초과학이나 고급 수학같이 어려운 과목도 마다하지 않는다. 독립적이고 자기 나름의 관심사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주로 혼자서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영감을 추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며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새로운 사실들에 전념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때로는 그 밖의 과목들에는 소홀히 하여 낙제 점수를 받기도 한다. 배워야 할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때 편안해 하며, 알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래들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대화의 대상은 자신의 생각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며 자신의 생각에 수준 있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체로 사교적인 기술이 부족하여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해 본의 아니게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놀고 즐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고, 일이나 수행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일 때 가장 좋아한다.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하는 가벼운 칭찬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며 칭찬하는 사람을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경향을 나타낼 때도 있다.(강경미, 2003)

즉 탐구형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으로 지식 탐구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며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늘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무엇이든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규칙과 원리를 많이 알고자 한다. 또한 독자적으로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토론식 수업을 선호하고, 과제나 결과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기를 좋아한다.(이경아 외,

2004)

4) 이상형

이상형 학생들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대개 이들은 이상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감정이입을 잘하며 표현이 풍부하고, 인격적인 교류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다. 적개심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여 이러한 종류의 긴장에 계속 노출되면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때도 있다. 인정과 보살핌과 관심을 받고, 감정적인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자신의 감정적인 자세를 인정받을 때 잘 성장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고 이해해주며 인정해 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종종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한 부끄러움을 타므로 같은 학급의 친구들과 허물 없이 지내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경향이 있으므로 폭력이나 공포에 의해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급에서 훌륭하게 행동하며,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정열적으로 참여할 때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급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이나 역할 놀이, 연극 공연 및 소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흥미를 보이며, 일대일의 대화나 소수가 모여서 하는 학습방식을 선호하며, 과학이나 경영학 같은 추상적인 과목보다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과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강경미, 2003)

즉 이상형은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유형으로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고 비경쟁적, 조화로운 관계를 선호하며 경쟁적인 상황, 갈등적인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잘 이해받을 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 또한 이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며 소그룹 토론 방식의 수업을 좋아한다.(이경아 외, 2004)

학습성격 유형을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적용해본 결과 이상형과 행동형의 비율이 높았으며 탐구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아 외, 2004).

서영근(2002)은 탐구형 유형의 학습자가 학업성취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행동형 학습자는 학업성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학습자의 학습 성격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규범형 성격 유형 학습자가 학습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며, 이상형은 학습 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습 성격 유형에 따라 학습전략의 사용정도가 다를 것을 보였다고 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시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382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중 기재가 미비한 37명을 제외한 남학생 177명, 여학생 168명, 총 34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학년	4	113	32	학교성적 수준	상	39	11
	5	136	39		중	247	71
	6	96	27		하	59	17
성별	남	177	51	학업성적 만족도	아주 만족	53	15
	여	168	49		만족	234	67
출생순위	말이	166	48	교사관계 만족도	불만족	58	16
	중간	135	39		아주 만족	125	36
	막내	41	11		만족	216	62
	독자	6	1		불만족	4	1

가정분위기 만족도	아주 화목	152	44	교우관계 만족도	아주 만족	133	38
	화 목	187	54		만족	196	56
	화목하지 않음	6	1		불만족	16	4

2. 용어의 정의

가. 표현양식

학교생활화에서 학습성격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에 나타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 검사를 1학년 3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한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표현 특징들을 학습 성격유형별로 추출하여 규범형 표현양식, 행동형 표현양식, 탐구형 표현양식, 이상형 표현양식으로 표현양식을 분류하여 설정하였으며 성격진단 도구로 활용이 간편하고 용이할 수 있도록 표현양식 유형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들을 간단하게 구성하였다.

1) 규범형 표현양식

규범형 표현양식에는 규범형 아동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환경에 순응하는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소로는 교실 장면, 내용으로는 강의식 수업 장면, 자신보다 위쪽에 위치한 교사상, 반복적 표현, 자신보다 큰 교사상 등을 규범형 표현양식에 포함시켰다

2) 행동형 표현양식

행동형 표현양식에는 행동형 아동들이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욕구가 강함에 따라 장소로는 교실 외의 장면, 내용으로는 놀이, 청소, 잡담, 두리번거림 등 수업과 무관한 모든 역동적 활동, 자신보다 낮거나 같은 교사의 위치 표현, 자기상보다 작은 교사상 표현 등을 포함했다.

3) 탐구형 표현양식

탐구형의 표현양식에는 행동형 아동들이 호기심과 관찰력이 뛰어나고 본질과 사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함에 따라 칠판글, 상표 등의 세부적 묘사표현, 만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주머니 식 문자표현, 주변 사물의 입체적 표현, 스케치하듯 여러 번의 겹치는 선, 수학, 과학, 실험, 실습 등의 탐구식 수업활동

등을 포함했다.

4) 이상형 표현양식

이상형 표현양식에는 이상형 아동들이 인격적이고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함에 따라 장식적 표현, 순정 만화적인 맑고 귀여운 눈과 얼굴의 표현, 자아상의 펼친 팔 이내에 들어오는 가까운 타인상과의 거리, 4명 이상의 많은 인물상의 수, 자신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웃는 얼굴 등을 하위 요소로 포함시켰다.

나. 학습성격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학습성격유형은 학습성격검사 결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유형을 말하며 조합형을 제외한 규범형, 행동형, 탐구형, 이상형의 4가지 기본 유형만을 의미한다.

3. 연구도구

가. 환경변인 설문지

환경 변인을 조사하는 설문지는 학년,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 만족도, 학교성적 수준, 학업성적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등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학교생활그림(KSD)

학교생활그림 검사를 위해 사용된 재료는 A4용지, 연필, 지우개이며 연구자가 모든 연구대상 학생들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급의 담임 교사들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므로 검사 실시자를 위한 검사요강이 사용 되었다.

학교생활화(KSD) 검사는 수행단계와 질문 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수행단계에서 검사 실시자는 실시상의 주의점을 충분히 인식한 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사지의 뒷장에 “앞 면에 여러분의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여러분 자신과 선생님, 한 명 이상의 친구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세요”라고 기록하였다.

KSD수행이 끝난 후 질문단계에서는 “① 그린 인물 위에 그린 순서를 적고 인물 위에 누구인가를 적으세요 ② 그림의 장면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라고 질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연구자가 대상 학생들의 검사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없었고 애매한 그림표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채점기준도 연구자에 따라 달라 번즈와 코프만이 개발한 채점기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학년 36명을 대상으로 학습성격 유형을 6월에 1회 검사하고 학교생활그림 검사를 3월, 6월, 10월에 3회에 걸쳐 동일 학급을 대상으로 선행 검사하였다.

수합한 학교생활그림 108장을 대상으로 학습성격 유형별로 나타난 학교생활그림의 특징적인 표현을 추출하여 표현양식에 따른 하위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학교생활그림의 채점 기준을 보면 중간 범위에 속하는 표현까지 고려하고 측정도구로서 자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분이 애매하거나 측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그림을 보고 확실히 드러나는 표현에만 1점, 그렇지 않거나 애매한 표현에는 0점을 주어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여 활용도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 채점 기준은 <부록1>처럼 자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 학습성격검사

학습자의 학습과 관련된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만권과 한종철(2001)이 개발한 U&I학습유형 검사 중 학습 성격을 분류하는 5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성격을 보여주는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같으면 ‘그렇다’, 같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니다’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학습 성격 유형은 기본형과 기본형을 조합한 14개 유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규범형, 행동형, 탐구형, 이상형 네 가지 하위 척도만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하위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규범형 .68, 행동형 .70, 탐구형 .63, 이상형 .64이었다.

라. 자료처리

아동의 학습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처리는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분석

1.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학습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학교생활그림 학습성격유형	규범형 표현양식	행동형 표현양식	탐구형 표현양식	이상형 표현양식
규범형 성격유형	.288**	-.198**	-.060	-.073
행동형 성격유형	-.219**	.248**	-.081	-.154**
탐구형 성격유형	-.022	-.047	.435**	-.061
이상형 성격유형	-.061	.054	-.050	.345**

** $p < .01$.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첫째, 학습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288($p <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도 -.198($p < .01$)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은 행동형 표현양식과 .248($p <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도 $-.219(p < .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역시 $-.154(p < .01)$ 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탐구형 표현양식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435(p < .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학습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이상형 표현양식간의 상관관계 계수 역시 $.345(p < .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성격유형의 하위 요소인 규범형 성격유형, 행동형 성격유형, 탐구형 성격유형,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세부 요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학습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표 3>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학교생활그림	학습성격유형	규범형 성격유형
규범형 표현양식	교실장면	.231**
	의자에 앉은 장면	.205**
	높은 위치 교사상	.297**
	반복적 표현	.299**
	강의식 수업장면	.264**
	큰 교사상	.161**
행동형 표현양식	교실외 장면묘사	-.204**
	역동적 활동장면	-.180**
	낮은 위치 교사상	-.044
	같은 위치 교사상	-.138*
	작은 교사상	-.052

탐구형 표현양식	세부묘사	.068
	입체적 표현	-.053
	문자적 표현	-.033
	스케치식 터치	-.127*
	탐구식 수업장면	-.099
이상형 표현양식	인물상의 수	-.063
	순정만화적 표현	-.012
	인물상과의 거리	-.106
	장식적 표현	-.035
	웃는 얼굴 표정	-.050

* $p < .05$, ** $p < .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를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장면에서 .231($p <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의자에 앉은 장면에서도 .205($p < .01$)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으며, 높은 위치 교사상 .297($p < .01$), 반복적 표현 .299($p < .01$) 강의식 수업장면 .264($p < .01$) 큰 교사상 .161($p < .01$)에서 역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규범형 성격 유형과 교실의 장면묘사와의 관계에서 -.204($p < .01$)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동적 활동장면도 마찬가지로 -.180($p <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위치 교사상 역시 -.138($p < .05$)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스케치식 터치에서만 -.127($p < .05$)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나) 학습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표 4>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학교생활그림	학습성격유형	행동형 성격유형
규범형 표현양식	교실장면	-.114*
	의자에 앉은 장면	-.180**
	높은 위치 교사상	-.157**
	반복적 표현	-.082
	강의식 수업장면	-.265**
행동형 표현양식	큰 교사상	.137*
	교실외 장면묘사	.140**
	역동적 활동장면	-.285**
	낮은 위치 교사상	.148**
	같은 위치 교사상	.063
-탐구형 표현양식	작은 교사상	.129*
	세부묘사	-.073
	입체적 표현	-.022
	문자적 표현	-.029
	스케치식 터치	-.076
이상형 표현양식	탐구식 수업장면	-.103
	인물상의 수	-.074
	순정만화적 표현	-.062
	인물상과의 거리	-.168**
	장식적 표현	-.094
	웃는 얼굴 표정	-.161**

* $p < .05$, ** $p < .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를 각 요소별로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장면에서 $-.114(p < .05)$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의자에 앉은 장면도 $-.180(p < .01)$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또한 높은위치 교사상에서도 $-.157(p < .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의식 수업장면 역시 $-.265(p < .01)$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고, 큰 교사상도 마찬가지로 $-.137(p < .05)$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외 장면묘사에서 $-.140(p < .01)$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동적 활동장면도 마찬가지로 $-.285(p < .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위치 교사상에서 역시 $.148(p < .01)$, 작은 교사상 $.12(p < .05)$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인물상과의 거리 $-.168(p < .01)$ 에서와 웃는 얼굴 표정 $-.161(p < .01)$ 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다) 학습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표 5>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학교생활그림	학습성격유형	탐구형 성격유형
	교실장면	.100
	의자에 앉은 장면	.054
규범형	높은위치 교사상	-.072
표현양식	반복적 표현	-.072
	강의식 수업장면	-.086
	큰 교사상	-.028

행동형 표현양식	교실외 장면묘사	.111*
	역동적 활동장면	-.080
	낮은 위치 교사상	-.095
	같은 위치 교사상	-.059
	작은 교사상	.023
-탐구형 표현양식	세부묘사	.279**
	입체적 표현	.398**
	문자적 표현	.245**
	스케치식 터치	.343**
	탐구식 수업장면	.367**
이상형 표현양식	인물상의 수	-.081
	순정만화적 표현	.042
	인물상과의 거리	-.075
	장식적 표현	-.021
	웃는 얼굴 표정	-.079

* $p < .05$, ** $p < .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를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외 장면묘사에서만 $-.111(p < .05)$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묘사에서 $.279(p < .01)$, 입체적 표현에서 $.398(p < .01)$, 문자적 표현에서 $.245(p < .01)$, 스케치식 터치에서 $.343(p < .01)$, 탐구식 수업장면에서 $.367(p < .01)$ 로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

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라) 학습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표 6>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p < .05$, ** $p < .01$.

학교생활그림	학습성격유형	이상형 성격유형
규범형 표현양식	교실장면	.049
	의자에 앉은 장면	-.121*
	높은위치 교사상	-.073
	반복적 표현	.027
	강의식 수업장면	-.100
행동형 표현양식	큰 교사상	-.038
	교실외 장면묘사	-.039
	역동적 활동장면	.099
	낮은 위치 교사상	.018
	같은 위치 교사상	.018
-탐구형 표현양식	작은 교사상	.065
	세부묘사	.040
	입체적 표현	-.008
	문자적 표현	-.003
	스케치식 터치	-.021
이상형 표현양식	탐구식 수업장면	-.126*
	인물상의 수	.088
	순정만화적 표현	.336**
	인물상과의 거리	.245**
	장식적 표현	.289**
	웃는 얼굴 표정	.297**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

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를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의자에 앉은 장면에서 $-.121(p < .05)$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탐구식 수업장면에서 $-.126(p < .05)$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인물상의 수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정만화적 표현에서 $.336(p < .01)$, 인물상과의 거리에서 $.245(p < .01)$, 장식적 표현에서 $.289(p < .01)$, 웃는 얼굴 표정에서 $.297(p < .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반응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진단도구로서 학교 생활그림이 유용한지 살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시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4,5,6학년 남학생 177명, 여학생 168명, 총 34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환경변인 설문지와, 학습성격유형 검사, 학교생활그림을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습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도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교실 장면 표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의자에 앉은 장면, 반복적 표현, 강의식 수업 장면, 자신보다 큰 교사상, 높은 위치의 교사상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 외의 장면 묘사, 역동적 활동 장면, 자기상과 같은 위치의 교사상에 대하여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스케치식 터치에서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듯이 규범형 학습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것은 규범형 성격유형의 학생들이 갖는 규범적인 성격이 그림 표현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생활 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행동형 학습성격 유형과 상반되는 표현양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실 외 장면 묘사, 역동적 활동장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낮은 위치 교사상, 작은 교사상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 장면, 의자에 앉은 장면, 높은 위치의 교사상, 강의식 수업장면, 자신보다 큰 교사상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관계가 없었다.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가까운 인물상과의 거리, 웃는 얼굴표정에서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은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 반대의 표현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행동형 학습유형 학생들

에게서 나타나는 활동적이고 자유롭고 싶어 하는 외향적인 욕구가 그림 표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습성격 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묘사, 입체적 표현, 문자적 표현, 스케치식 터치, 탐구식 수업장면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행동형 표현양식과는 교실장면 묘사에서만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있었고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관계가 없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탐구형 학습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에서 탐구형 표현양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탐구형 학습 성격유형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과 사실을 추구하려는 탐구적 성향이 학교생활그림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인물상의 수를 제외하고 순정만화적 표현, 가까운 인물상과의 거리, 장식적 표현, 웃는 얼굴 표정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의자에 앉은 장면에서만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행동형 표현양식과는 유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없었다.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탐구식 수업장면에서만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은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형 성격유형의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향과 사람과의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려는 욕구가 학교생활그림에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표현양식과의 상관관계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그림을 통해 학습성

격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설문식 성격검사 도구와 함께 학교생활그림을 사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성격과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표현양식과의 관계를 밝힐 수는 있었으나 1, 2, 3학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지필검사인 학습성격유형 검사는 문장 이해력이 낮고 성격형성 과정에 있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저학년의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특징들의 변화에 대한 후속연구와 함께 동일 대상이 고학년이 된 후 학교생활그림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가 후속 된다면 학교생활그림을 통하여 저학년의 학습성격유형도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격유형 중 기본 유형만을 대상으로 한 기초 연구이므로 실제 아동들의 성격은 조합정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며 실제로 그림을 통해 성격을 예측할 때는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표현양식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성격유형을 학교생활그림 한 장으로만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표준화검사와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표현양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비전문가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구성한다는 의도가 있었으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현장에서 활용할 때는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학생들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의 표집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전국 단위로 표집대상을 확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정희(1993). 아동화의 연구방법. 미술교육논총, 제2집, 99~118
- 조봉환(2003). 초등학생의 진로상담을 위한 학습흥미검사 개발. 초등교육연구, 16(1), 273~296
- 이경아 외(2004). 학습 성격 유형 및 전공 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 치료, 16(1), 107~121
- 김만권,한중철,이기학(2002). 학습상담전문가 활용가이드. 서울:연우심리연구소
- 서영근(2002). 학습성격유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전략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숙,김갑숙(2005).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그림(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미술치료 연구 제12권 제1호, 159~178
- 김동연,최외선,오미나(1998).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학교생활그림(KSD)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제5권 제2집, 299~318
- 최외선,곽형식,백양희(1998). 환경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KSD반응특성 : 인물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제5권 제1집, 181~195
- 김애랑(1995). 학교생활그림을 통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지각에 관한 연구 : 역동성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 이형구(2004).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특징적 표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15집 1호
- 강경미(2003). 성격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만족의 차이 비교,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조미경(2004). 초등학생의 자기·교사·교우 지각과 학교생활화(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홍승희(2005). 초등학교에서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그림(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문호석(1998). 아동화에 나타난 만화적 표현과 만화선호도와의 상관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부연(1994). 아동의 지능과 미술능력 연관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3

집, 34~50

- 김재은(2002).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 교육과학사
- 최외선, 정현희(2004). 동적 가족화와 심리진단, 대구 : 중문
- 한국미술치료학회 편(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동아문화사
- 이규선 외(2003). 미술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 신민섭 외(2002).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학지사
- 서봉연(1992). 발달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김만권(2004). 성격을 알면 성적 오른다. 서울 : 이지북
- Lowenfeld and Brittain(1995)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역,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3
-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1996),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177
- 차동채, 김춘일(1998). 아동미술지도의 이해, 서울 : 미진사
- 최재영(2001). 아동미술활동의 지도와 이해, 서울 : 창지사
- J.Goodnow, 김 정 (역)(1996). 아동화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Charles S. Carver & Michael F. Scheier, 김교현 외 역(2005), 성격심리학, 서울 : 학지사
- Burns, R. C & Kaufman, S. H.(1970). *Kinetic Family Drawings(K-F-D):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children through kinetic drawing.* New York : Brunner / Mazel
- Burns, R. C & Kaufman, S. H.(1972). *Actions, Styles and Si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s(K-F-D)*New York : Brunner / Mazel
- Knoff, H., & Prout, H. T.(1988). *Kineic Drawing System for Family and School : A Handbook.* Californi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부록 1 >

학교생활그림(KSD) 채점 기준

영역	변수	반응		채점기준
		1	0	
규범형 표현양식	· 교실 장면 묘사			교실 장면이면 1점, 아니면 0점
	· 의자에 앉은 장면 묘사			자기상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1점, 아니면 0점
	· 높은 위치의 교사상			교사상의 위치가 자기상보다 높으면 1점, 낮으면 0점
	· 반복적 표현			같은 물건의 반복적 배열이나 그물같이 반복적 구조로 된 사물을 생략 없이 묘사하고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강의식 수업장면			학생들은 앉아 있고 교사만 앞에서 수업하는 장면이면 1점, 없으면 0점
	· 큰 교사상			교사상의 크기가 자기상보다 크면 1점, 아니면 0점
행동형 표현양식	· 교실 외 장면 묘사			운동장, 현장학습, 기타 교실 외 장면이면 1점, 아니면 0점
	· 역동적 활동장면			발표, 운동, 청소, 놀이, 잡담, 노래 등 일반 수업과 무관한 활동이면 1점, 아니면 0점
	· 낮은 위치 교사상			자기상 보다 낮은 위치의 교사상이면 1점, 아니면 0점
	· 같은 위치의 교사상			자기상과 같은 위치의 교사상이면 1점, 아니면 0점
	· 작은 교사상			자기상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의 교사상이면 1점, 아니면 0점, 교사상이 생략되면 1점 처리

탐구형 표현양식	· 세부묘사	전반적으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1점, 아니면 0점
	· 입체적 표현	평면적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물의 표현이 입체적이면 1점, 아니면 0점
	· 문자적 표현	사물에 있는 문자 말고 부연설명을 위한 문자표현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스케치식 터치	스케치하듯 터치가 전체적으로 여러 번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탐구수업 장면	토론, 실험, 실습 등의 수학, 과학, 탐구관련 활동 장면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이상형 표현양식	· 인물상의 수	총 인물상이 4명 이상이면 1점, 아니면 0점, 단 경기장 관중인 경우 무시
	· 순정만화적 귀여운 표현	순정만화에 나오는 맑고 귀여운 얼굴 표현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가까운 타 인물상과의 거리	자기상의 팔을 완전히 뻗었을 때 들어오는 인물상이 있으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
	· 장식적 표현	인물상이나 주변에 꽃, 리본, 레이tm 등의 장식적 표현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웃는 얼굴표정	자기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웃는 표정이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

< 부록 2 >

환경변인 설문지

1. 여러분의 성별을 표시 하세요

- ① 남 ② 여

2. 여러분의 출생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① 맏이 ② 중간 ③ 막내 ④ 독자

3.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4. 지금의 학교 성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5.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6.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7.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 ① 아주 화목 ② 화목 ③ 화목하지 않음

< 부록 3 >

학습 성격 유형 검사

1. 연극이나 역할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2. 학교에서 하는 수업방식이 내게 맞는 것 같다. (○ , ×)
3.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따지기 좋아한다. (○ , ×)
4. 친구가 나에게 잘못했다라도 쉽게 용서해 준다. (○ , ×)
5.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 , ×)
6. 수업 시간에 공책 정리를 꼼꼼히 한다. (○ , ×)
7.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서 생각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 (○ , ×)
8. 동화책을 읽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된다. (○ , ×)
9.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을 좋아한다. (○ , ×)
10. 공부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 (○ , ×)
11. 남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에도 깊이 파고든다. (○ , ×)
12. 감정표현이 풍부하다. (○ , ×)
13. 활동적인 특별활동이나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 , ×)
14. 등교시간이나 학원 수업시간에 늦지 않는다. (○ , ×)
15. 한번 집중하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 , ×)
16. 이것저것 생각은 많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적다. (○ , ×)
17.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18. 토론 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수업이 더 좋다.
(○ , ×)

19.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해 받을 때가 있다. (○ , ×)
20. 칭찬받거나 꾸지람을 들으면 기분이 쉽게 좋아지거나 나빠진다. (○ , ×)
21. 활동적이다. (○ , ×)
22.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 ×)
23.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해 아는 것이 많다. (○ , ×)
24. 친구 마음을 잘 이해한다. (○ , ×)
25. 새롭고 흥미진진한 일을 찾는다. (○ , ×)
26. 남을 잘 돕는다. (○ , ×)
27. 모든 것을 근거(증거)에 따라 설명하려 한다. (○ , ×)
28. 마음이 따뜻하고 성격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 ×)
29.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해 버린다. (○ , ×)
30. 책임감이 있다. (○ , ×)
31.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 본다. (○ , ×)
32. 슬픈 일을 보면 쉽게 눈물이 난다. (○ , ×)
33. 무슨 일이든 스스로 알아서 한다. (○ , ×)
34. 계획적이다. (○ , ×)
35. 이야기 할 때 요점만 간단하게 말한다. (○ , ×)
36. 남에게 친절하고 배려를 잘한다. (○ , ×)
37. 용감하다. (○ , ×)
38.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는 편이다. (○ , ×)
39. 생각을 많이 한다. (○ , ×)
40. 원칙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나만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한다.

(○ , ×)

41. 경쟁심이 강하다. (○ , ×)
42. 일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한다. (○ , ×)
43. 나만의 생각과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한다.
(○ , ×)
44. 작은 일에도 슬피하거나 감동한다. (○ , ×)
45.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 (○ , ×)
46. 나의 생활은 매일 똑같다. (○ , ×)
47.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찾아서 지적한다. (○ , ×)
48. 최고가 되거나 완전하기를 바란다. (○ , ×)
49.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한다. (○ , ×)
50. 규칙을 잘 지킨다. (○ , ×)
51.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짐작한다. (○ , ×)
52. 마음이 넓은 편이다. (○ ,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and Reactiv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in Elementary School

Gang Geon-taeg

Major in Elementary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irected by Prof. Oh Jae-ho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ing style and the reactiv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in elementary school, and to examine availability in KSD as a tool that can predict character.

As for the research subjects, it targeted totally 345 persons with 177 boys and 168 girls in the 4th, 5th, and 6th grade for 4 elementary schools where are located in 2 citi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measurement tool was utilized environmental-variable questionnaire, learning-style test, and KSD. And, the data analysis was used SPSS Win 13.0 program.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in a bid to grasp the general characters in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iming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and KSD.

The conclusions, which were obtaine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ormative mode in a learning style was indicated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normative expression mode in KS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ynamic mode in a learning style and the dynamic expression mode in KSD was indicated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hird, there w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igative mode in a learning style and the investigative expression mode in KSD.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l mode in a learning style and KSD was indicated to have partial correlation. Given examining by each element, except the number of human figures, th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as indicated in expression of Korean Girl's Cartoon, in distance from close human figure, in decorative expression, and in smiling face expression.

Accordingly, the correlation between a learning style and the expression mode in KSD, which was shown in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possibly utilized as the useful basic data that can predict a learning style through KSD. Given using KSD together with other personality inventory in questionnaire, it will be able to be measured more effectively.

Key Words : Kinetic School Drawing(KSD), Learning style,
Expression mode